

주일 오후 찬양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수요 밤 예배

저녁 7:30 인도: 홍순용 목사

목도 ----- 다 같이
찬송 ----- 36 장 ----- 다 같이
기도 ----- 김진숙 시무권사
성경봉독 ----- 막 9:30-37 (p.신약 70) ----- 인도자
설교 ---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 홍순용 목사
찬송 ----- 521 장 ----- 다 같이
기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 같이

*다음 주 기도: 한옥숙 시무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인도: 홍순용 목사

말씀: 시편 강해

금요 밤 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 봉사위원

9월	안내 및 헌금 위원	교회 정문		1층 현관		본당 입구		예배실	
		신앙호 집사	사	김성민 시무집사	박송용 시무집사	김진숙 시무집사	홍영숙 시무권사		
		허준해 집사	사	문경숙 시무권사	김진숙 시무권사	김진숙 시무권사	정옥자 시무권사		
		계 수		봉 헌					
		최현철 / 김수길		1부 김성민 시무집사		2부 윤대원 시무집사		3부 최현철 시무집사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상태(김미래) 김순호(박옥란) 김진석(조정구) 도기중(김행자) 문영석(정 순) 박상귀(변형남) 최윤석(강정화) 한상우(김에스더) 김경선 김용순 김점심 김진숙 문예담 양수연 오미영 이금석 장명숙 정석모 조원구 최성경 최성연 홍옥숙 황예진
감사헌금	도기중(김행자) 장정국(홍영숙) 최윤석(강정화) 김귀숙 김성숙 김경선 이순자A 정옥자 조원구 한경희
생일감사	조원구
선교헌금	김경선 김경숙 김미래 김성숙 김순호 김은순 김점심 김진숙 김진영 문영숙 오미영 오성만 원은신 이금석 이순자A 이연호 이 훈 장경호 장명숙 정 순 조원구 조정구 최윤석 한경희 홍옥숙
건축헌금	김미래 김순호 김점심 김진숙 김진영 문영숙 오미영 이금석 이순자A 이연호 이 훈 정 순 조원구 조정구 한경희
장학헌금	김순호 문영숙 이연호
증식헌금	신수남

※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 농업 100051-51-074600 (예금주: 동산교회)

※헌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주 증식헌금

- 김정우 성도(박영희 시무권사)님 가정 (김은경,성만,성도 생일감사)
- 장봉수 집사(서경진 집사)님 가정 (장봉수 생일감사)

[2021년 성경읽기]

1독: 김길자 권사 (1독)	2-3독: 이옥주 집사 (2독)	4독: 김길자 권사 (2독)
5독: 김길자 권사 (3독)	6독: 장정국 장로 (1독)	7독: 이병희 장로 (1독)
8독: 박영희 권사 (1독)	9독: 정옥희 권사 (1독)	10독: 김귀숙 권사 (1독)
11독: 김경숙 권사 (1독)	12독: 이순자A 권사 (1독)	13-17독: 김길자 권사(8독)

주/간/말/씀

회복의 시작
(본문: 학개 1:1-6)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수정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위치와 삶의 정리된 계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온 백성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다(1-2).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 뜻을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워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왕 다리우스1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차 포로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려했지만 방해세력으로 인해 제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어느새 16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1차 포로 대상자들은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다시 1차 포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 하나님께서 성전의 황폐함을 말씀하시다(3-4).
백성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수십 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런 주변 환경을 통해 그들의 눈은 결국 현세에 맞추어져 버렸고,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상관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전"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이라는 국소적은 지리적 위치에 세워진 건물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제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고전3:16, 엡2:21-22). 우리도 혹 수십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현재적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코로나 상황, 패닉바이 부동산의 상황,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 노후문제, 재테크 등등 신앙 성숙을 위한 시간을 투자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개발해야 하는 수십가지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신앙이 황폐케 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5-6).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수확의 감소, 배고픔, 헐벗음, 경제적 빈곤 현상등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만들고, 부강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들의 복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법의 집행도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생각하며 인간이 스스로 먹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의 체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아파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것을 그들은 생각해 봐야 하고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점검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보다는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믿음을 지킬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 믿음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된 우리의 신앙회복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준비하여 예전과 같이 믿음의 성숙과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동산교회 성도로, 각 개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고 다시 지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